미세 혈뇨 환자에서 신 조직검사 후 발생한 요 누출 1예

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김난희 · 신영태 · 이강욱 · 나기량 · 이영모 · 정사라 · 김의식 · 정지윤 · 장원익

Urine Leakage and Urinoma Formation as Post Kidney Biopsy Complication in Microscopic Hematuria Patient

Nan-Hee Kim, Young-Tai Shin, Kang Wook Lee, Ki-Ryang Na
Young-Mo Lee, Sarah jeong, Eui-Sik Kim, Ji-Yoon Jung, Won IK Jang

Division of nephrology,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Chungnam National University, Daejon, Korea

서 론 : 신 조직검사 후 약 2~8%의 환자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합병증으로는 육안적 혈뇨, 신 주위 혈종, 동 정맥루, 동맥류, 타장기 손상 등이 있으며 소변 누출은 아주 드문 합병증이다. 저자들은 미세 혈뇨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신 조직검사 후 발생한 신주위 혈종, 요로의 손상 및 소변의 복강 내 누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.

증 례 : 20세 남자가 2005년 10월 군 신체 검사상 진단된 미세 혈뇨를 주소로 내원하였다. 과거력 상 평소에 진단을 받은 질환은 없으며 2005년 8월에 감기 몸살을 앓고 난 후 육안적 혈뇨가 한 차례 있었다. 2006년 12월에 신 조직검사를 위하여 본원에 입원을 하였다. 입원당시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, 혈액 검사상 WBC 7,200/uL, segment neutrophil 61%, Hb 15.7 g/dL, platelet 226,000/uL이었고, BUN/Cr 13/0.8 mg/dL이었다. 소변 검사상 protein−, erythrocyte 3+ ery/uL, RBC many /HPF, WBC 0−1 /HPF이었으며, RBC는 이형성 RBC가 100%이었다. 제 2병일에 2차례 좌측 신장에서 신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신 조직이 나오지 않았고, 초음파 상 좌측 신장에 혈종 형성이 관찰되었다. 제 3병일에 우측 신장에서 다시 신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당일부터 짙은 갈색뇨가 나왔으며 왼쪽 옆구리와 하복부의 통증이 심하였다. 복부 CT상 우측 신장 주위에 혈종이 형성되어 있었고, 좌측 신장 주위에 소변 누출이 있었다. 당시 활력 징후는 혈압은 130/80 mmHg, 맥박수는 88회/min, 호흡수는 20회/min, 체온은 37.5도 이었다. 좌측 요로의 손상으로 인한 소변 누출로 진단을 하고 double J catheter를 삽입을 하였고 항생제를 사용하였다. 이후 더 이상의 소변 누출이 없고 왼쪽 옆구리 통증과 하복부 통증도 감소하였으며, 제 12병일에 BUN/Cr이 21/1.7 mg/dL까지 상승을 하였으나 17병일에는 10/1.1 mg/dL까지 감소를 하였다. 상태가 안정화되어서 18병일에 double J catheter를 유지한 채 경구 항생제를 처방 받아서 퇴원을 하였다. 신조직 검사 결과는 IgA 신병증으로 확인되었다.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 경과가 양호하여 Double J catheter를 제거하였다.